

나상호 “과감한 돌파로 아시안컵 가겠다”



나상호가 지난달 20일 호주 브리즈번 퀸즐랜드 스포츠 육상센터(QSAC)에서 열린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축구국가대표 친선경기에서 공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메달, 득점왕, MVP 등 ‘상복 터진’ 광주 FC 나상호가 이번에는 아시안컵을 겨냥한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11일 울산에 소집돼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 대비한 훈련에 들어갔다.

아시안컵에 나갈 23명의 최종 엔트리를 확정하기 전 치르는 마지막 테스트 무대에는 유럽파를 제외한 K리그 18명과 일본 파 3명, 중국파 2명 등 한중일 리그에서 뛰는 23명만 참가했다.

K리그 2 MVP에 빛나는 광주 나상호도 벤투 감독의 부름을 받고 다시 한번 국가대표 유니폼을 입었다. 앞서 나상호는 지난달 17일 호주와의 평가전을 통해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나상호에게는 최고의 2018시즌이었다.

프로에 뛰어들던 지난해 부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던 나상호는 데뷔 첫해의 아픈 기억을 교훈 삼아 ‘2년 차 징크스’ 대신 ‘2년 차 신화’를 썼다.

시즌 시작과 함께 광주의 주축 선수로 자리를 굳힌 나상호는 지난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대표팀의 일원으로 값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후 시즌 최종전에서 16호골을 터트리면서 ‘최연소(22세)’ 득점왕에 등극한 그는 K리그2 시상식에서 최고의 공격수에 이어 MVP 트로피까지 거머쥐었다.

벤투호 한·중·일 리거 23명 소집

최종 엔트리 확정 전 마지막 테스트

“컨디션 90%... 슈팅 등 자신있어”

16일·20일 울산에서 연습경기

여기에 A매치 데뷔전이라는 기억까지 더해진 2018시즌이다. 나상호는 “MVP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받을 것으로 생각은 하지 못했다. 득점왕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이었고 MVP는 정해지지 않고 투표로 했던 거라서 다른 상에 비해서 더 긴장감 넘쳤고 기뻐한 것 같다”며 “지난 시즌 동계훈련 시작하자마자 부상을 당했고 그게 시즌 중반까지 이어졌다. 1년 차에 안 좋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걸 더 알고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올 시즌을 돌아봤다. 최고의 순간들이 이어졌지만 나상호의 시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시안컵이라는 또 다른 목표가 나상호 앞에 놓여있다. 나상호는 “(시즌이 끝났지만)쉬지 못하면서 몸이 지칠 수도

있는데 정신력으로 잡으면 된다. 바쁠수록 나에게 경험이 되고 이득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몸 관리 잘해서 좋은 모습 보여줬다”고 이번 훈련에 임하는 소감을 밝혔다.

최종 엔트리에 들기위한 나상호의 전략은 ‘과감함’이다. 나상호는 “호주전을 통해서 A매치 데뷔를 했는데 아시안게임에 뛰어서 그런지 A매치라는 생각이 안 들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나오자는 생각이었다. 사람도 많고 그랬는데 내 할 것만 집중이 됐다”면서 “조금 더 과감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소심했다. 당시 무릎이 좋지 못했는데 지금은 90% 컨디션이니 더 과감하게 슈팅도 때리고 보여드리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 “수비적인 부분을 더 중요시하고, 공격할 때는 공간을 잘 활용해서 어시스트 등 공격 포인트도 올리는 등 많이 뛰고 팀에 기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축구대표팀은 이번 전지훈련 기간 역시 울산에 소집된 23세 이하(U-23) 대표팀과 두 차례 연습경기를 가질 예정이다.

첫 연습경기는 16일 오후 5시 30분 울산종합운동장에서 비공개로 진행되고, 두 번째 연습경기는 20일 오전 10시 30분 같은 곳에서 미디어 공개로 열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세계 탁구 별들 인천 총출동

내일부터 ‘월드투어 그랜드파이널스’

세계 탁구의 별들이 총출동하는 ‘2018 국제탁구연맹(ITTF) 월드 투어 그랜드파이널스’가 13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막을 올려 16일까지 열린다.

그랜드파이널스는 올해 ITTF 투어를 결산하는 최고 권위의 대회로 세계 톱랭커들만 출전한다.

올해 12개의 월드 투어 대회 성적을 기준으로 남녀 단식은 상위 16명, 남녀 복식과 혼합복식은 상위 여덟 팀만 각각 초청을 받았다.

ITTF 세계랭킹 남자부 1위인 판전둥을 비롯해 쉬신(2위), 마룽(11위·이상 중국), 베테랑 티모 불(독일·3위)이 출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 선수 중에서는 남자부 에이스 이상수(삼성생명·7위)와 장우진(미래에셋대우·15위), 임종훈(KGC인삼공사·20위) 3명이 참가 자격을 얻었다.

여자부에서도 세계 1위 주율링과 덩닝(2위·이상 중국), 이시카와 카스미(3위), 이토 미마(7위·이상 일본)가 참가한다. 한국 선수로는 서효원(한국마사회·11위)이 유일하게 출전권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 상금은 총 100만1000달러(한화 11억2500만원)로 남녀 단식 우승자는 10만 달러(1억1000만원)를 각각 받는다. 한편 ITTF는 대회 개막에 앞서 12일 오후 6시 30분 인천 그랜드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올해 활약한 선수와 지도자를 시상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연합뉴스

UEFA ‘올해의 팀’ 누구

20개국 50명 다음달 11일까지 팬 투표

유럽축구연맹(UEFA) ‘올해의 팀’ 투표가 후보 공개와 함께 막을 올렸다.

UEFA는 내년 1월 11일까지 팬 투표를 거쳐 선정되는 ‘올해의 팀 2018’ 후보 50명을 10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서 발표했다.

후보엔 골키퍼 5명, 수비수와 미드필더, 공격수는 각 15명이 이름을 올렸다.

최근 발롱도르를 거머쥔 루카 모드리치(레알 마드리드)와 2위에 올랐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유벤투스) 등이 포함됐다.

이들을 비롯한 50명은 14개 클럽, 20개 국가에서 나왔다. 클럽 순으로는 UEFA 챔피언스리그 3연패를 달성한 스페인 레알 마드리드가 모드리치를 필두로 가장 많은 9명을 배출했다. FC바르셀로나(7명),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리버풀(이상 6명), 유벤투스(4명), 맨체스터 시티·파리 생제르맹(이상 3명)이 뒤를 이었다.

리그 별로는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가 앞장선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서 가장 많은 22명이 나왔고,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14명), 이탈리아 세리에A(7명) 등 순이었다.

선수의 국적으로 보면 올해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승한 프랑스 출신이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스페인(6명), 브라질(5명), 우루과이(4명)에서도 다수 후보가 나왔다.

최고령 후보는 34세인 유벤투스의 수비수 지오르지오 키엘리니, 최연소 후보는 오는 20일 만 20세가 되는 킬리안 음바페(파리 생제르맹)다. /연합뉴스

프로축구父子 탄생

신태용 전 감독 아들 신재원 FC서울 입단 협상

2018 러시아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을 이끌었던 신태용(48) 전 감독의 아들인 미드필더 신재원(21·고려대)이 FC서울 입단을 앞두고 있다.

서울 관계자는 11일 “신재원 선수 영입을 위해 입단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계약 세부 조건을 조율 중이며, 구단 내부 최종 결정과 신재원 선수의 메디컬 테스트 등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신재원은 메디컬 테스트에서 큰 문제가 없으면 서울 유니폼을 입고 내년 시즌 K리그에 데뷔할 전망이다.

신재원은 2017년 고려대에 입학해 주전 미드필더로 활약했다. 내년엔 3학년이 되지만 졸업 전에 프로행을 타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학축구 최강자를 가리는 U리그 왕중왕전에서는 2-2로 맞선 후반 43분 결승 골을 터뜨리며 전주대를 3-2로 꺾고 대회 2연패를 달성하는 데 앞장섰다.

드러블 돌파와 슈팅 능력이 좋고, 중앙 미드필더와 측면 공격수를 두루 뛸 수 있는 전천후 선수다. 신재원은 김학박 23세 이하(U-23) 대표팀 감독이 2020년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10일부터 울산에서 대학생 위주로 소집한 U-23 대표팀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남자 핸드볼 남북 단일팀 이달말부터 호흡

남측 선수 16명·북측 선수 4명 독일서 합류 세계선수권 대비 훈련

2019년 1월 독일에서 열리는 세계남자핸드볼 선수권대회에 단일팀을 구성하는 남북이 독일에서 곧바로 만나 훈련을 시작한다.

11일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따르면 임원 3명과 선수 4명 등 7명으로 구성된 북측 선수단이 이달 말 독일에 도착해 남측 선수단과 합류, 세계선수권을 대비한 훈련을 하기로 했다.

제26회 세계남자핸드볼 선수권대회는 2019년 1월 10일부터 27일까지 독일과 덴마크가 공동 개최한다. 남북은 지난달 체육분과회담을 통해 이 대회 단일팀 구성에 합의했다.

24개국이 출전하는 이 대회의 팀별 선수 수는 원래 16명이지만 국제핸드볼연맹(IHF)은 남북 단일팀만 20명으로 이를 늘려

졌다. 이에 따라 남측 선수 16명에 북측 선수 4명이 합류해 단일팀을 꾸리기로 했다.

남측 선수들은 16일까지 국내 리그 일정을 마치고 17일부터 충북 진천선수촌에 소집될 예정이다.

원래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이나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때의 단일팀 사례와 마찬가지로 북측 선수들이 방남해 손발을 맞춰본 뒤 현지로 출발할 계획이었으나 이번에는 곧바로 독일에서 처음 만나 훈련을 시작한다.

남측 선수들도 진천에 모인 지 나흘째인 20일에 곧바로 독일

로 출국하는 항공편을 예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단일팀의 첫 경기는 대회 첫날인 1월 10일 개최국 독일과 공식 개막전이기에 때문에 첫 경기보다 약 20일 먼저 대회 장소에 도착하는 셈이다.

남북 단일팀은 독일, 프랑스, 러시아, 세르비아, 브라질과 함께 A조에 편성됐다.

독일이 세계 1위의 최강이고 러시아 4위, 프랑스 5위, 세르비아 6위 등 말 그대로 ‘죽음의 조’다.

한국의 세계 랭킹이 19위, 브라질은 27위지만 브라질은 2016년 자카르타에서 열린 올림픽에서 8강까지 진출하는 등 만만치 않은 전력을 보유한 팀이다.

우리나라는 2015년과 2017년 세계선수권에는 지역 예선을 통과하지 못했고, 2013년 대회에서 24개국 가운데 21위에 머물렀다. 사령탑은 군팀인 상무를 지휘하는 조영신 감독이다. 북측 선수 4명은 모두 현역 군인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